

무안군 영산강(榮山江)과 몽탄면(夢灘面)과 일로읍(一老邑)



김기빈 |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
중앙지명위원회 위원(bino88@iklc.co.kr)

강 이름으로 역사와 인생무상 가르쳐

강은 설명없는 이야기, 해설 없는 인생

“사랑은 강물처럼 흘러가버렸다.”고 시인 아폴리네르는 그의 시 「미라보다리」에서 노래했다. 공자는 강가에서 “가는 자도 이와 같을까? 주야로 흘러서 쉬는 법이 없구나.”(서자여사부逝者如斯夫 불사주야不舍晝夜) 하고 무상한 인생을 탄식했다.¹⁾

강물은 흐른다. 그 흐르는 속성 때문에 시간의 흐름, 인간의 생로병사나 삶의 덧없음에 결부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강물이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비유되기도 하고, 낡고 죽고 재생하는 윤회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뭍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 니 뭍락카노 /
바람에 불려서 //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 박목월 「이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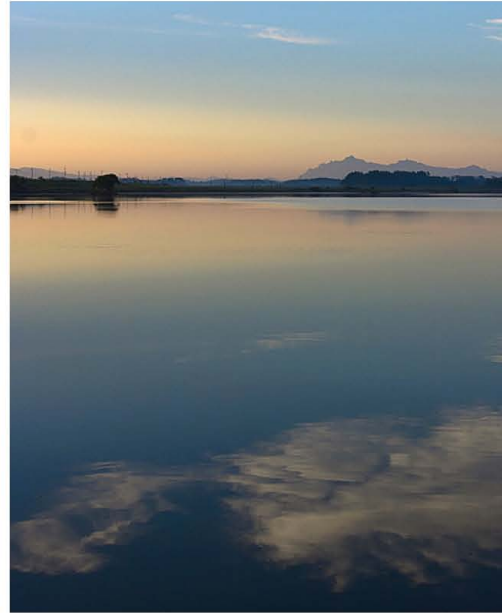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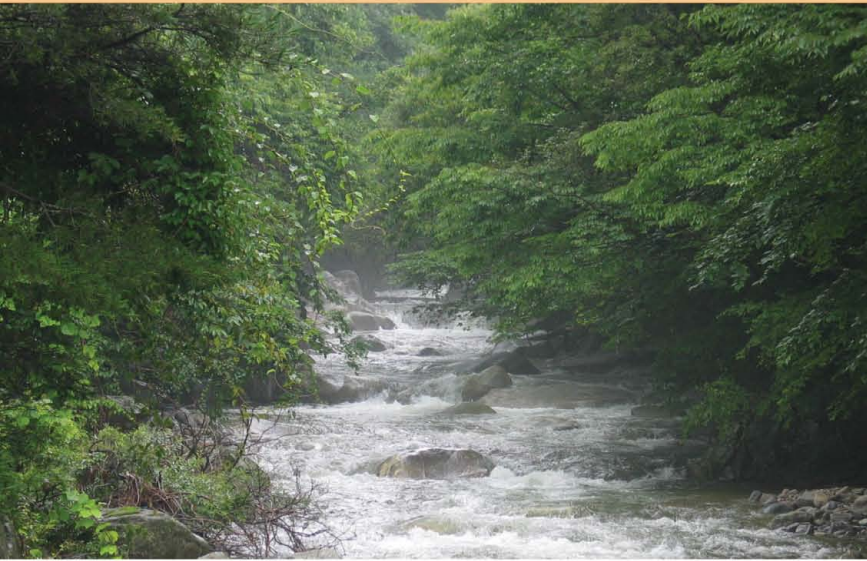
공간적으로 강은 이쪽과 저쪽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며, 문학적으로 강

의 이쪽은 차안(此岸) 이승이요, 저 쪽은 피안(彼岸)이니 곧 저승세계다. 강의 자연스럽고 유연한 흐름은 인생의 섭리와 자연의 순리를 가르친다. 그래서 “강은 설명이 없는 긴 이야기요, ... 강은 해설이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나아가서 강은 인생살이를 가르치는 대 철인이요, 스승이 되는 것이다.

강은 항상 동시에 있다. 근원에서, 강어귀에서,
폭포에서, 나루에서, 여울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강은 항상 동시에 있다. 강에는 현재만 있을 뿐
이고,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헬만 헤세는 『신탈타』에서 강물의 흐름을 현재진행형의 완벽한 일체로 보았다. 그에 의한다면, 지리산 노고단에 떨어진 한 방울 빗물은 흐르

¹⁾ 논어에 나오는 말이며, 유명한 공자의 「천상지탄(川上之嘆)」이다.



고 흘러 구례의 서시천 - 섬진강을 거쳐 남해바다로 들어가지만, 여기서 한 방울 빗물은 바다에 합해진 것이 아니라 '바다 그 자체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강을 한자로는 '江'이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ㄹ 흐름' 또는 '강'이라 하는데, 한문글자의 '江'은 수(水)와 공(工)이 합해서 만들어진 형성문자이다. 이 글자는 원래 보통명사가 아니라 장강(長江) 곧 양쯔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였다. 양쯔강이 흐르면서 내는 물소리가 '공공'(工의 중국 고음)하고 들리므로 이것을 본떠서 만든 의성어인데, 이것이 뒤에 일반적으로 강을 가리키는 보통명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강의 곡류에 구미 - 굶 - 꿈, 그리고 왕건의 꿈

강물에 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멈추고, 영산강으로 말머리를 돌려보자.

영산강은 전남 담양군 용면 용추봉(龍湫峰)에서 발원하여 목포 남쪽에 서 황해로 흘러들어가는 길이 122km의 강(남한 5대 강 중의 하나)이다.

광주지방에서 흘러오는 극락강(極樂江), 장성군의 장성호에서 흘러온 황룡강(黃龍江)이 합해져 서남쪽으로 흐르는데, 이 강이 나주를 지나서 무안에 이르면 몽탄강(夢灘江) 또는 몽강(夢江)이라는 이름이 된다.

그런데 영산강은 본래 금천(錦川) 또는 금강(錦江)이라고도 불렀다. 공주의 금강이 그렇듯이, 모두가 '큰 강'을 소리가 비슷한 한문글자로 적은 아사(雅詞)일 뿐이다. 이 강이 「영산강(榮山江)」으로 불리게 된 것은 신안군의 영산도(永山島) 사람들이 왜구의 침입을 피하여 나주 부근의 강변에 개척한 마을을 영산포(榮山浦)라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강 이름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²⁾

그런데 무안지역에서 이 강을 왜 몽탄강 또는 몽강이라고 불렀을까? 지도를 보면 금방 알겠지만, 이 지역은 영산강이 S자로 굽어져 흐르는 곳이다. 이처럼 하천의 곡류(曲流)지점에는 구만리(굶안), 구비내(굶비안), 구미, 꾸미 등의 이름이 붙게 된다.

이런 이름들이 구미)꾸미)꿈으로 되어 '꿈 몽(夢)자 몽탄(夢灘: 꿈여울)으로 한자화 된 것인데, 서울의 한강이 굽어져 흘렀던 '몽촌(夢村)이나, 탄천이 휘돌아 흐르는 성남시 구미동의 '구미', 낙동강이 휘돌아 흘렀던 경북 구미시의 '구미'도 모두 강의 곡류지점을 나타내는 이름들이다.

강이 굽어진 '꿈어울' - 몽탄강. 그러나 이 강에는 또 인간의 꿈을 소재로 한 역사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니, 이 산하 곳곳에 흘러넘치는 구전 설화들이 모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살 붙여지면서 그 시대, 그 지역 민중의 정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후백제 견훤과 서남해안에서 싸울 때의 이야기이다. 후백제 견훤의 강성한 군대에 왕건의 군대가 영산강부근에서 포위되었는데, 강물이 범람하여 빠져 나갈 수가 없었다. 이때 왕건이 군막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대업을 이루려는 자가 일기도 모르고 잠만 자면 되는가. 지금 강물이 빠지고 있으니, 빨리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라"하고 일러주었다.

꿈을 깬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보니 과연 강물이 빠졌으므로, 강을 건너서 오히려 포위한 견훤의 군대를 격파하여 대승하게 되었다고 한다. 몽탄강은 그가 꿈에 계시를 받고 강을 건너게 되었으므로 몽탄강, 또는 몽강이라 부르게 되었으며,³⁾ 그때 견훤의 군대를 크게 이긴 여울을 파군천(破軍川), 그 다리를 파군다리라 하여 지금까지 불려오고 있다.

「일로(一老) - 한번 늙어짐」 - 생로병사가 모두 꿈

이 영산강 즐거움을 따라서 내려가면 몽탄면 바로 아래가 일로읍(一老邑)⁴⁾이다. 일로(一老). 모든 사람의 일생은 생로병사(生老病死)로 귀결된다. 우리의 일생은 한 번의 출생, 한번의 죽음일 뿐이며, 그 중간의 노화(老化) 과정 역시 「일로(一老) - 한번의 늙어짐」으로 볼 수 있다.

Wine comes in at the mouth	술은 입으로 들어오고
And love comes in at the eye	사랑은 눈으로 들어오나니
That's all we shall know for truth	우리가 늙어서 죽기 전에
Before we grow old and die	진리로 알 것은 다만 이것 뿐.
I lift the glass to my mouth	나는 술잔을 입에다 대고
I look at, and I sigh.	그대를 바라보며 탄식하노라.

이것은 영국의 시인 에이츠의 시다. 이 시에서도 '老'는 인간이 늙음으로써 죽게 되는 연속적인 (1회의) 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다.

인간은 한 줌의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들이 이 세


상의 것을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모래처럼 손을 빠져 나가게 마련이며 손 안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문명의 편리함도, 어떤 의학이나 생명공학 분야도, 어떤 컴퓨터 공학도 인간을 늙지 않게 할 수는 없다.

몽탄강(夢灘江)과 일로읍(一老邑).

강물의 이름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말하는 「영(永, 榮) 산(生, 山)강」으로 풀이되기도 하는데, '몽탄'이라는 이름은 그것이 한 토막의 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견훤과 왕건의 싸움이 한 바탕의 꿈이었듯이, 인간이 한번 늙어서 한번 죽는 것 또한 일장춘몽(一場春夢)인 것이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장자(莊子)의 호접몽(胡蝶夢)이다. 꿈은 에피파니아(Epiphanian)라고 하며, 신현(神顯)으로 풀이한다. 신이 내리는 계시의 수단이고,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며, 또 운명을 점칠 수 있는 것으로 믿기도 한다. 그러나 장자는 그의 <제물론(齊物論)>에서 유명한 호접몽을 통하여, 꿈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만물은 반드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변화속의 하나의 양상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의 "내가 호접이고, 호접이 나"라는 세계는 (我, 인간)와 (物, 꿈)의 혼연일체 된 이상향을 말한 것이며, 인생을 「부생약몽(浮生若夢)」으로 보았던 것이다.

몽탄강과 일로읍은 복잡한 인생사를 탈속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² 천소영, 『물의 전설』 (창해, 2000) 111 - 112쪽
³ 내부부, 『지방행정지명사』 (1982, 무안군) 535쪽
⁴ 일로읍은 무안군의 일부가 신라 때 안로현(安老縣)인데, 현이 폐지된 후 그 지역을 나누어 일로, 이로 등으로 구분하였다.